

사진 조각... 대형 벽화... 현대미술 대표작가 한자리

'두산레시던시 뉴욕' 인연 이형구·권오상 등 14명 참여

조상인기자 ccsi@sed.co.kr

입력시간 : 2012.07.22 16:21:43 수정시간 : 2012.07.22 16:21:43



- 권오상 '컨트롤' 중 얼굴부분



한국 [현대미술](#)을 대표하는 스타작가들이 두산갤러리에 집결했다. 개관 5 주년을 맞은 서울 두산아트센터 내 두산갤러리가 확장 공사를 끝내고 재개관 기념전 '리오프닝(Reopening) 두산갤러리 서울'을 개막했다.

참여작가들이 면면이 화려하다. 갤러리 정문에 들어가기 전, 신설공간인 윈도우갤러리(쇼윈도 형태의 전시장)에는 2007 년 [베니스비엔날레](#) 한국관 단독 대표작가인 조각가 이형구의 대형작품이 설치돼 있다. 해골모양의 이 작품은 [애니메이션](#) 속 캐릭터의 골격구조를 형상화 한 것이다.

전시장에 들어서면 인물상이 눈에 들어온다. 한국인 최초로 영국 맨체스터시립미술관에서 전시하는 등 활동이 왕성한 권오상의 작품 '컨트롤'이다. 한 사람을 300~400 장, 많게는 1,000 장씩 구석구석 [촬영](#)한 다음 그 [사진](#)을 오려 붙여 실제 크기로 만드는 '사진조각'으로 유명한 권 작가는 전통 조각기법을 기반으로 하되 2 차원의 사진을 3 차원의 입체로 재창조하는 독자적 영역으로 입지를 굳혔다.

안쪽 벽면을 짙게 채운 [대형 벽화](#)는 김기라의 '정물(Still Life)'시리즈다. 중세 유럽의 삽화 기법으로 그린 이 정물화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햄버거·커피·콜라 등의 '정크푸드'가 우리 몸을 살찌우는 동시에 죽음으로 내몰고 있음을 은유한다. 2009 년 [문화체육관광부](#) 장관상인 '올해의 젊은 예술가상'을 수상하기도 했던 작가다. 홍경택의 대표작 '서재(Library)'도 만날 수 있다. 2007 년 홍콩 [크리스티](#)경매에서 대표작 '연필'이 약 7 억 7,000 만원에 낙찰돼 홍콩경매 사상 한국 [현대미술](#) 최고가 기록을 세운 것으로 유명한 작가다. 21 세기 책가도(冊架圖)인 전시작은 조선시대 민화의 다시점 기법과 상징적 사물들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하되 작가 특유의 다양한 색상과 질서정연한 구조가 반영됐다.

[사진작가](#) 백승우의 작품은 벽 대신 좌대 위에 설치돼 있으며 관객이 집어갈 수도 있다. 작가가 수집한 5만장의 사진 가운데 8장을 골라 그럴듯한 가짜이야기를 만들게 한 작품이다. 작가는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동일한 사건도 다르게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의 역할에 대해 끝없이 질문한다.

전시장을 한바퀴 돌아 나오면 민성식의 작품 '부두(Harbor)'와 마주게 된다. 새파란 바다와 주황색 배가 이루는 대비가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작품은 거대한 권력앞에 놓인 개인의 꿈을 상징하는 작은 뗏단배가 주인공. 그 옆 김인배의 설치작품은 추상적이지만 인체의 움직임이 담긴, '[드로잉](#)'처럼 보이는 조각'이다. 이외에도 독일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사진작가 김인숙, 2010년 [한진해운](#)의 양현미술상 수상자인 설치작가 이주요, 2009년 에르메스미술상 수상자인 박윤영, '기계 생명체' 작품으로 유명한 최우람을 비롯해 정수진, 성낙희, 이동욱 등 총 14명의 작가가 참여했다.

이들의 공통점은 두산레지던시 [뉴욕](#)의 장기입주작가였다는 것. 연강재단이 운영하는 두산갤러리는 2009년 세계미술의 중심인 미국 뉴욕 첼시에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열고 1년에 6명씩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며 거주용 [아파트](#)와 작업실, 전시와 현지미술계 교류기회를 제공해 국제 진출의 [발판](#)을 마련해 주고 있다. 전시는 8월 19일까지. (02)708-5050 .